

5 진만사 국제결혼이주민 산사체험 현장 “언어 달라도 불심으로 하나”
6 창단공연 ‘매혹’ 마친 남우성 대표 “좋은작품이 대중 관심의 힘”
17 선자식·석남사 회주 정무 스님 “가족 보살피는 것도 보살행”
19 영운 스님 두 번째 개인전 개최 “도자기 물고기” 이야기

“학내 종교자유 보장돼야”

서울시교육감 후보 토론회... ‘종교편향 반대’ 한목소리

지난달 기도와 <성경> 독송으로 수업 시작하고, “하나님 믿어야 천당 가고, 다른 종교 믿으면 지옥간다”는 초등학교 교사의 종교편향 행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불교계는 교육현장은 물론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편향에 대한 재발방지 입법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학내 종교자유를 수호하려면 교육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은 학내 종교편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조계종 불교정책기획단(공동대부 승원)이 7월 22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에는 박장욱(前 동국대부속중학교장), 이영만(동국대 겸임교수),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주경복(건국대 교수) 등 4명의 교육감 후보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종교편향 교육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을 같이 했다. 박장욱 후보(기호 3번)는 “학교는 종교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규 후보(기호 5번)는 “공립학교에서의 편파적 종교 교육 행위는 위법행위다. 징계회부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나선 주경복·박장욱·이인규·이영만 후보(우측부터).

다. 주경복 후보(기호 6번)도 “종교가 다르다고 특정 학생에게 부담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학내 종교자유 보장 대책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박장욱 후보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종교단체 전문가를 장학사로 선발해 일선학교의 올바른 종교교육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영만 후보(기호 4번)는 “2010년 실시 예정인 학교선택제에 종교를 제1순위로 놓겠다. 각자의 종교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게 할 것”이라 말했다. 공립학교의 종교자유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방과 후 동아리 활동 등으로 종교활동 보장이 가능하

다”고 주장했다. “종립학교 제도와 학생 종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이인규 후보는 창의형 자율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창의형 자율학교를 운영해 학교의 종교이념을 드러내고 학생은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규 후보는 “보편적 종교성 교육은 학교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종교계 사학의 종교교육에 관해 주경복 후보는 “특정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 다른 종교를 배제하는 것은 안 되지만 종교의 건학이념 구현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와 별도로 7월 23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김희성, 이하 종자연)은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종자연 배병태 사무국장은 “정책질의 핵심은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종교과목 외의 복수과목 편성에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서, “학내 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낮아 아쉽다”고 말했다.

“종교과목 외 복수과목 설치” 실행에는 6명의 후보 중 박장욱, 이영만, 주경복 후보는 계속 유지 입장을, 공정택(기호 1번), 김성동(기호 2번), 이인규 후보는 학교장 및 교사 재량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사무국장은 “학내종교자유문제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닌 학생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요한 투표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토론회와 정책질의는 ‘선거운용’일 수 있다는 약점이 있지만 교육현장에서의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화두 풀기’에는 적지 않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30일 교육청 종교편향 근절 여부가 판가름난다.

조동섭 기자 cetsana@buddhapia.com



“더위 잊고 불교 배워요”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충북 괴산군 다보수련원에서 ‘2008 연꽃 어린이연합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법회 사찰을 대상으로 한 연합 캠프로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과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7월 24일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선유동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글·사진=박재원 기자

조계종 승려복지법안 ‘윤곽’

승려노후복지특위 4차 회의...소득·의료·주거 대책 구체화

조계종 승려노후를 위한 세부 계획과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복지법(안)’이 마련돼 11월 중법 입안 예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승려노후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동광, 이하 위원회)는 7월 23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조계종 승려복지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11월 중법 입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박재현 실장(월정사 종무실)이 제안한 ‘조계종 승려복지 추진 방안’은 지난 3차 회의(2008년 6월 18일 개최)에서 제기된 소득·의료·주거보장을 구체화했다. 조계종 재적승려 중 60세 이상 승려 2621명에게 ▲1인당 매월

60만원(예를 지급하고, ▲교구본사별 노스님 전용숙소를 건립·운영하며, ▲65세 이상 스님에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재적승려 전체에 대해서는 교육 및 수행환경 보장을 골자로 한다. 소득과 의료 보장 대책은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부족분은 개인연금 가입 또는 교구목적사업기금특별회계(교구승려복지회계) 등을 조성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필요재원은 승려복지사업기금 특별회계의 승려복지 예산과 종단 일반회계 및 교구예산의 10% 출연금, 승려노후복지사업 목적분담금 및 출연금, 재정부담사찰

의 분담금 등을 통해 마련하고, 조계종 승려공제회에서 운용한다. 위원회는 총칙, 조직 구성 및 운영, 소득보장, 보건·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 기금조성 등 총8장으로 구성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법(안)도 검토했다. 참가자들은 승려복지법 입안을 위해 중헌 116조와 승려법 34조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종회에 개정을 함께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제4차 회의에는 위원장 동광 스님을 비롯해 선문·종호·각원·보인·세영 스님과 고경환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9인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서울시교육감 어떤 자리?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지역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정책과 행정, 교원인사 및 예산 집행 등을 책임지는 ‘서울 교육 시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으로 다른 시·도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행사해 ‘교육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한편 서울시 교육예산 6조원과 교직원 6만여명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영유아보육정책, 학원 심야교습 허용 문제 등 교육정책 전반

을 다룬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학교 자율화’ 조치 등 교육업무의 지방이양이 확산되면서 교육과학부 장관 못지 않은 권한을 갖게 됐다. 2010년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7월 30일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서울시 교

육감 임기는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3년까지만 가능하다. 교육계에는 정치 이슈에 따라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교과부장관보다 막강한 권한에도 4년 임기가 보장되는 서울교육감이 훨씬 낫다는 평가도 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부처님 계시공양 **향파로, 물마로**
백두대간 천혜의 자연에서 자란 편백, 솔, 속, 산요초의 향긋한 향기의 액을 증류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음·관용 진동 **관불수향**
울긁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_대구 정지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영가등 주름등 왕생극락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경기도 아남시 교산동 132-1/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